



보도 일시	2026. 5. 11.(월) 12:00 <5. 12.(화) 조간>	배포일	2026. 5. 11.(월)
담당 부서	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	담당자	김소영 팀 장(043-880-5421) 안세련 차 장(043-880-5422)
	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		배현정 과 장(044-200-4420) 조상훈 사무관(044-200-4422)

[소비자안전주의보]

삼킴 사고, 영유아는 '이물질', 어르신은 '음식물 걸림' 주의

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과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)는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·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,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·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,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2세 이하 영아기, '자석'·'동전'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

최근 5년간(2021.1.~2025.12.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,113건*으로, 이 중 67.6%(2,781건)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.

* 연도별 현황: ('21년) 728건→('22년) 949건→('23년) 972건→('24년) 655건→('25년) 809건

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병원, 소방서,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(117개)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,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, '1세' (25.2%, 702건)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, 이어 '0세' (17.5%, 487건), '2세' (13.6%, 379건)의 순으로 나타났다.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(56.3%, 1,568건)을 차지했다.

주요 위해 품목은 '자석' (13.8%, 384건), '완구' (10.0%, 279건), '동전' (9.6%, 266건) 순*이며, 구슬·스티커·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.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.

* 주요 위해 품목(상위 6개): 자석(384건) > 완구(279건) > 동전(266건) > 구슬(193건) > 스티커(103건) > 건전지(101건)

□ 고령자,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

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*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높다.

*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

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곧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소방청에 따르면, 최근 5년간(2021.1.~2025.12.)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,196명이다

<고령자 질식 사고 관련 국내·외 위해사례>

국내(CISS 접수 사례)

- (73세, 남) 2026.3. 자택에서 고구마 섭취 중 목에 걸려 사망
- (83세, 여) 2026.3. 요양병원에서 굴 섭취 중 목에 걸려 의식 소실되어 병원 이송

해외(일본 후생노동성 통계)

- 2024년 한 해 동안 음식으로 인한 질식 사망자는 총 4,383명으로 집계됐으며,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91%(3,992명)를 차지

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,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.

□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'하임리히법' 등 응급조치 시행

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,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*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*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(<붙임 3> 참조)

반면 자석, 동전,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.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.

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·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▲자석·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, ▲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,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, ▲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.

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
'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'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[위해정보 신고]

- (홈페이지) www.ciss.go.kr에서 '위해정보 신고하기' 클릭
- (핫라인) 국번없이 080-900-3500



위해정보 신고

- 붙임 1. '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관련 위해정보' 분석
2. '고령자 음식 섭취 중 질식 사고' 관련 국내·해외 사례
3. 소비자 주의사항
4. 영유아·고령자 삼킴·질식 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



1 **위해정보 분석 결과**

- (전체) 최근 5년간(2021.1.~2025.12.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,113건이며, 이 중 67.6%(2,781건)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
- (연령별) 7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2,781건의 이물질 삼킴 사고를 분석한 결과 ‘1세’가 25.2%(702건)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‘0세’ 17.5%(487건), ‘2세’ 13.6%(379건)의 순으로, 2세 이하 사고가 전체 영유아 사고의 56.3%(1,568건)를 차지

<영유아 연령별 이물질 삼킴 사고 발생 현황>

(단위: 건, %)

구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6세	7세	계
건수	487	702	379	338	316	261	156	142	2,781
(비율)	(17.5)	(25.2)	(13.6)	(12.2)	(11.4)	(9.4)	(5.6)	(5.1)	(100.0)

- (위해품목별) 사고를 유발한 주요 위해품목은 ‘자석’ 13.8%(384건), ‘완구’ 10.0%(279건), ‘동전’ 9.6%(266건) 등으로, 삼킬 경우 장 천공 또는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 필요

<이물질 삼킴 사고 유발 주요 위해품목 현황(상위 6개)>

(단위: 건, %)

구분	자석	완구*	동전	구슬	스티커	건전지
건수	384	279	266	193	103	101
(비율)	(13.8)	(10.0)	(9.6)	(6.9)	(3.7)	(3.6)

※ 그 외 게임액세서리(바둑알 등), 머리핀, 나사·못 등 확인

* 슬라이 완구, 작은 블록, 수정토, 공깃돌, 비눗방울 용액, 찰흙 등

2 **주요 위해사례**

- (1세, 남) 2025.5. 구슬 모양의 자석 10개를 한꺼번에 삼켜 입원
- (1세, 남) 2024.8. 직경 2cm 리튬 전지를 삼켜 식도 천공 발생으로 입원

1 국내 사례

- (사고 건수) 소방청 구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(2021.1.~2025.12.)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이송된 인원은 총 1,196명이며,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으로 전체의 83.5%를 차지

<최근 5년간 ‘떡·음식’으로 인한 기도 막힘 관련 이송 현황>

(단위: 건, %)

구분	0~7세	8~13세	14~19세	20~39세	40~59세	60세 이상
2021년	13	3	3	10	11	164
2022년	8	3	1	5	18	179
2023년	9	2	0	3	24	246
2024년	11	2	4	3	24	200
2025년	11	4	3	6	17	209
계(비율)	52(4.3)	14(1.2)	11(0.9)	27(2.3)	94(7.8)	998(83.5)

※ 출처: 소방청 보도자료(「'설 연휴, 떡·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1.3명 꼴' 60세 이상이 83.5%... 고령층 각별한 주의 당부」 (2026.2.3.))

- (주요 위해사례) 최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70대 고령자가 고구마를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했고, 80대 고령자가 꿀을 섭취하다 기도 폐쇄로 의식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

- (73세, 남) 2026.3. 자택에서 고구마 섭취 중 목에 걸려 사망
- (83세, 여) 2026.3. 요양병원에서 꿀 섭취 중 목에 걸려 의식 소실되어 병원 이송

※ (참고) 고령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3월부터 ‘식품 섭취 중 목 걸림(질식)’ 사고를 CISS 위해정보 수집 항목에 포함

2 해외 사례

- (일본)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 전역에서 음식으로 인한 질식 사망자는 총 4,383명으로 집계됐으며,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91%(3,992명)를 차지해 고령층의 사고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았음.

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예방

- 자석, 건전지, 동전 등 작은 물품은 서랍장 등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- 바닥, 침대 밑, 소파 사이 등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험 물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
-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선택하고, 완구에서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오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.
- 놀이 중에는 시선을 떼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합니다.

고령자 음식 섭취 중 질식 사고 예방

- 음식을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, 특히 딱처럼 점성이 높은 음식은 더 잘게 나누어 먹는 등 삼키기 편한 형태로 준비합니다.
-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전 물을 조금 마셔 입안과 목을 적셔줍니다.
 - 다만,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나 국물을 마셔 강제로 삼키는 행위는 오히려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잘 씹어서 삼킵니다.
- 음식을 먹는 도중 말을 하거나 웃으면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식사 중 대화를 자제하며, 보호자는 고령자의 식사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.

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

- 기도가 막혀 청색증, 호흡곤란, 말을 하지 못하는 등의 질식 증세를 보이는 경우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.

<기도폐쇄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영상 바로가기> ※ 출처: 질병관리청

성인 기도폐쇄 응급조치	영아 기도폐쇄 응급조치	성인 심폐소생술 방법	영아 심폐소생술 방법
			

- 질식 증세가 없더라도 자석·건전지 등 이물질을 삼킨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병원에 방문합니다.
 - 억지로 토하게 하거나 손가락을 넣어 빼내려고 하면 오히려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, 그 상태를 유지하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
영유아·고령자의 삼킴·질식 사고, 이렇게 예방하세요!



영유아

이물질 삼킴 주의

자석·동전·건전지 등
작은 부품은
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게
보관하세요.





고령자

음식 섭취 중 질식 주의

고령자의 식사를 준비할 땐,
음식을 한 입 크기로
작게 조리해
삼키기 편하게 주세요.



사고 발생 시에는 이렇게!

- 
기도가 막혀 질식 증세를 보일 경우,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.
- 
질식 증세가 없더라도 자석 등 이물질을 삼킨 경우, 가능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 상태를 확인합니다.

